

가격 반토막·재배면적 '뚝'...농물의 양파농가

통계청 재배면적 조사...최대 산지 전남 재배 4분의 1로 줄어 전남 마늘 재배농가도 2017년부터 해마다 줄어 5998ha 뿐

지난해 양파와 마늘 생산량이 늘면서 가격 하락세를 면치 못하자 올해 양파·마늘 최대 산지인 전남지역 농가들이 양파 재배면적을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마늘·양파 재배면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전국 양파 재배면적은 2만1756ha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2만6425ha보다 17.7% 감소한 것으로, 감소 폭은 2015년 -24.7%를 기록한 이후 4년 만에 가장 컸다.

특히, 전국에서 양파 재배면적이 가장 큰 전

남지역의 경우 올해 양파재배 면적은 8475ha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비해 무려 2853ha(25.2%)나 줄어든 것이다.

광주 역시 지난해 65ha에 비해 33ha로 31ha(48.6%) 재배면적이 줄었다.

이처럼 지역 농가들이 양파 재배면적을 줄인 것은 지난해 양파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급증함에 따라 양파 가격이 하락했던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의 경우 양파 재배면적이 1975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양파 생산량은 2017년 114만 4000t에서 지난해 152만1000t으로 33%나 늘었고, 수급 여파로 양파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조사한 양파 도매가격은 2017년 1kg당 평균 1234원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생산량 증가로 819원으로 떨어졌고 올해 들어서는 654원까지 급락했다. 불과 2년 만에 가격이 반토막이 난 것이다.

통계청은 또 전년 재배면적이 큰 품목 중 가뭄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도 있다고 분석했다.

양파에 이어 마늘의 재배면적도 줄었다. 전국 마늘 재배면적 지난해보다 2.3% 감소한 2

만7689ha로 집계됐으며, 재배면적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2015년 -17.7%를 기록한 이후 처음이라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전남지역은 2017년 6346ha에서 지난해 6030ha, 올해 5998ha로 매년 마늘 재배면적이 줄어들고 있다.

마늘은 양파처럼 지난해 전국 재배면적이 14.0% 증가했고 생산량도 9.2%가 늘어나면서 도매가격이 지난해 1kg당 평균 5551원에서 올해 5150원으로 하락세에 접어들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양파를 파종하거나 마늘을 심을 때 최근 가격이 큰 영향을 미친다"며 "지난해 재배면적이 지나치게 늘었는데 이에 따른 기저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주간 증시 전망

외국인 한국 전기전자업종 매수
코스피 역대최장 상승 후 숨고르기
엔터테인먼트 등 중국 제재완화 기대

코스피지수가 3월29일부터 4월16일까지 13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지수가 2250까지 상승했다. 이 기간동안 지수 상승을 이끌어낸 것은 2조4742억 원에 달하는 외국인 순매수다. 외국인은 코스닥 시장에서도 1325억원 순매수를 보였다.

하지만 13거래일 연속 상승에도 상승폭은 5.66% 그쳐 아쉬움이 남았고, 외국인이 순매도 전환한 18일 하루에만 1.43% 조정을 보이기도 했다.

올해 들어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6조7408억원과 코스닥에서 8160억원을 순매수했고, 4월에만 코스피에서 2조2720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이 한국주식을 공격적으로 순매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4월 1일부터 외국인 순매수 중 전기전자업종이 1조6000억원으로 65%에 달한다. 또 아시아국가에서 한국과 산업구조가 비슷한 대만시장에서도 비슷한 순매수 구조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은 한국시장을 산다기보다는 미국시장 전기전자업종 강세에 따라 한국의 전기전자업종을 매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업종에 집중되었고, 18일 미국 일부 언론에서 삼성전자 '갤럭시S10' 화면결함 이슈 보도와 관련해 외국인 순매수를 대량매도하며 코스피지수에서 순매도로 전환했다.

따라서 미국 IT 주식의 강세 여부가 외국인 수급에 매우 깊은 연관을 보이고 있으며 시장에서는 미국 IT 섹터에 대해 하반기 업황 개선을 예상하고 있어 외국인수급은 안정적 흐름을 기대하고 있다.

미·중 무역협상이 막바지에 이르고, 중국과 EU 정상회담 이후 중국은 주요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3월 15일 한·중 공황협정 이후 한·중 항공노선 추가허용 및 2차 전지, 게임, 엔터테인먼트 등 중국시장 제재완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시행 초기 우려했던 '전자상거래법'도 중국정부가 보따리상에 대한 단속보다는 양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보따리상의 구매양상이 저가 대량구매에서 단속과 신고를 고려해 고가·고마진 제품으로 바뀌고 있다.

단기 상승으로 중국소비주에 가격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공세적인 통화정책에 따른 중국정부의 경기부양노력이 지속되고 있고 중국의 소비진척 및 국내 중국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어 중국관련 면세점, 화장품, 게임, 엔터는 추가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이번 주는 자동차, 화학, 철강, IT 등 국내 주요기업 1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다. 연초대비 미국과 중국에 비해 국내증시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반등 흐름을 보이는 것은 반도체업종을 비롯한 국내기업의 부진한 실적 예상 때문이다. 코스피 1분기 영업이익과 순이익 전망치는 각각 33조원과 23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스피 실적에 영향을 큰 반도체업종이 2분기를 저점으로 회복을 예상하고 있어 실적시즌 기간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지수 상승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 증시는 단기 상승에 따른 숨고르기 장세가 예상되며 국내 이슈보다는 중국을 비롯한 해외증시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주 후반 순매도로 전환한 외국인 매매동향이 지수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여 외국인 동향에 관심이 집중된다. 여전히 지수플레이어 보다는 업종별 종목별 순환매 흐름에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지점장)

여행주간, 봄 바다로 떠나볼까 해수부, 체험마을 20곳 추천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은 27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봄 여행주간'을 맞아 전국 권역별 어촌체험 휴양마을 20곳을 21일 추천했다.

인천 중구 마시안 어촌체험 휴양마을은 수도권과 가까워 가볍게 떠날 수 있는 곳이다. 넓은 갯벌에서 조개를 잡고, 예약하면 맨손 고기잡이 체험도 가능하다.

경북 포항 남구 신항2리 어촌체험 휴양마을에서는 성게 요리를 맛볼 수 있다. 바다향 가득한 성게 국수와 성게 툇밥은 입맛을 돋워주는 별미다. 동해에서 낚시와 톳발채로도 할 수 있다.

제주 구좌읍 하도 어촌체험 휴양마을에서는 현지 해녀에게 직접 물질을 배울 수도 있다.

자세한 정보는 해양관광 누리집 '바다여행(www.seantour.kr)'을 참고하면 된다.

/연합뉴스

농협 전남본부, 과실공동브랜드 '상큼에' 부산 메가마트 특판행사

전남농산물 우수성 홍보도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석기)는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부산 메가마트 전 점포에서 '상큼에' 사과와 토마토 특별 판촉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메가마트에서 상큼에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 결과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는 메가마트 측의 요청에 따라 추진됐다. 전남농협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전남지역 과실공동브랜드 상큼에를 홍보하고 전남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렸다.

김석기 본부장은 "전남 대표 과실공동브랜드 '상큼에'를 통해 전남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할 것"이라며 "수도권을 비롯한 제주 등 전국적으로 소비시장을 확대해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농협은 지난해 4월 메가마트 동



래점과 남천점에서 사과, 토마토, 고구마, 파프리카 등 직거래 장터를 개장한 바 있으며, 영남지역 소비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축산물, 소비자 눈으로 간간하게 점검한다

농협중앙회, 위생안전 모니터링
농협중앙회(회장 김병원)는 22일부터 (사)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전국 230여개소 농협 축산물플라자를 대상으로 위생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한우인증과 소·돼지고기 잔류항생제 검사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자 위생안전 모니터링은 농협에서 판매 중인 축산물에 대해 소비자의 눈과 입장에서 품질, 위생, 안전 모니터링을 통해 점검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부적합 축산물 유통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추진됐다.

소비자시민모임 전문 조사원이 전국의 농협 축산물플라자를 불시에 방문해 한우·돼지고기

샘플을 채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검사기관인 농협 축산연구원에서 해당 시료를 검사·분석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이 발생할 경우 즉시 판매가 중지되고 잔류항생제가 검출될 경우 해당 제품은 폐기조치 된다.

판매장 내에서는 축산물 이력조회를 병행하여 유통과정과 표시사항에 이상이 없는 지도 점검한다.

농협 관계자는 "해당 사업을 통해 축산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와 기대수준을 충족시키고, 소비자가 우리 축산물을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농촌 별별 이야기 들려주세요"

농식품부, 여성 농업인 수기 공모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별별 이야기를 들려주세요'를 주제로 제3회 여성농업인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해 올해 3회째를 맞은 여성농업인 수기공모전은 여성농업인이 공모전 참여를 통해 스스로 직업인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농촌 생활에서 여성농업인이 경험한 소소한 일상과 역경을 이겨낸 사례, 귀농 및 청년 여성농업인의 농촌 적응기, 다문화 여성이 바라본 농업·농촌 이야기 등 다양한 소재가 대상이다.

수기 공모전은 오는 5월 20일까지 진행되

며, 여성 농업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A4용지 3매(다문화 여성농업인 2매) 분량으로 사진파일과 함께 공모담당자 이메일(sugi@agrinet.co.kr)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작품은 시인·소설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심사단이 여성농업인으로서의 자긍심, 체험의 진정성, 작품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대상 1점(농식품부장관상·상금 300만원), 우수상 6점(농협중앙회장상·상금 각 100만원), 장려상 12점(한국농어민신문사장상·상금 각 50만원)으로 총 19점을 선정한다. 시상식은 6월에 개최하고, 수상작은 작품집으로 제작해 수상자와 농업관련 주요 공공기관에 배부할 계획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연계 ESS에너지저장장치

- 태양광 발전사업자 사장님들께 희소식!
- 태양광 발전소에 ESS 설치시 REC 가중치5.0배
- 설치방법 : 본인부담10%·용자90%
- 1년거치 14년상환 (1개월이내 설치완료)

제품

경제혁신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태양광 발전소에도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대폭 확대

- 태양광 +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제(가) 기준치 5.0 부여 -

정부와 지자체,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신산업부 장관 4개 단체(에너지연구원·한국·전남·제주)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공동협력 체결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공동협력 체결을 통해 전면적인 규제 정비 개시

지자체, 에너지신산업 특별조례, 재정 지원

시남에 예산공여 등 대규모 프로젝트(4조원 규모) 추진 가능함에 광명 노력

ESS·설계·시공

ESS통합시스템 15년 효율보증서 발행 (무정전 전력 공급장치)

★태양광발전사업소, 매도·매수 하실 분 상담환영 **총괄본부장 010-9896-9754**

★태양광분양 및 태양광 현재설치중, 설치완료, 개발행위완료, 선로확보, 물건 다량확보

주 소 | 순천시 중양로 317 2층

전 화 | ☎061-752-7000 Fax | 061-751-6000

총괄본부장 | 010-9896-9754

전국 지사·대리점·영업자 모집

대표전화 1577-8963

전남지사 010-6838-3366

산·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주)성광에너지